Yeosu
Web Contents

2024년 07월 27일 10시 37분

목차

목차 2
이천리 3
지명유래(⊠⊠⊠⊠) 3
모개나무재[고개] 3
가마등[등] 3
수수밭금테기[장소] 3
대밭골[골] 3
온수[샘] 3
안골[골] 3
머구섬[섬] 3
모사등[등] 3
숫돌바구[바위] 3
불무청[터] 3
대밭골[골] 4
퇴섬끝[장소] 4
일정고지[곶] 4
새섬[섬] 4
평전[들] 4
골논[장소] 4
이대재, 오대재[고개] 4
꽃밭등[등] 4
진몰랑[산정] 4
후리목[장소] 4
듬벙수재[고개] 4
섭박골[골] 4
산태골[골] 5
신박골(흰)[골] 5
들머들[장소] 5
구렁꼬랑[골] 5
뚱재[고개] 5
모구낭골[골] 5
후리목[장소] 5
따박몰랑[산정] 5
무장기미[해변] 5
독살기미[해변] 5
잇낭기미[해변] 5
잉기미[해변] 5
구렁이[골] 5
불암산[산] 5
꽃밭등[산정] 6
장삼도[섬] 6
바리섬(래)[섬] 6
산박골[골] 6
버덩들[들] 6
쇠야지목[고개] 6
산수박바구[바위] 6
헷대끝[곶] 6
뒷개[개] 6
상산[산] 6
대팽이[들] 6
캐바구끝[곶] 6
메통바구[바위] 6
온돌머리[장소] 6
고려장터[터] 7
따신기미[해변] 7
용발따죽[장소] 7

나진리	서촌리	안포리	옥적리	용주리
이천리	이목리	장수리	창무리	화동리

지명유래(□□□□)

모개나무재[고개]

백초에서 오천으로 넘던 고개. 오래된 모과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음. 도깨비가 자주 나타났었다고 전해져 온다.

가마등[등]

오천리 북쪽의 해변의 등성이로 감돌아 가는 등.

수수밭금테기[장소]

오천리 북쪽의 가마등과 마을 사이의 지역으로 수수밭이 있던 곳.

대밭골[골]

오천리 마을의 북쪽으로 골짜기에 대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.

온수[샘]

오천 마을에 있는 약수터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솟아올라 피부병에 효험이 알려져 예전에는 물맞이터처럼 목욕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 한다.

안골[골]

오천 마을 동쪽의 골짜기.

머구섬[섬]

마을 서쪽에 있는 섬. 머구내 앞의 섬.

모사등[등]

마을 앞 해변가의 갯등으로 모래로 이루어진 등. 모살등 → 모사등으로 변화.

숫돌바구[바위]

마을 앞 해변의 바위로 숫돌로 사용하는 숫돌석으로 이루어진 바위.

불무청[터]

오천 마을 서쪽 양달에 있음. 불무는 풀무의 옛말로 대장간을 이르는 말. 대장간이 있던 터.

대밭골[골]

오천리 마을의 북쪽으로 골짜기에 대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.

퇴섬끝[장소]

마을 안골에서 흘러내린 흙이 쌓여서 이루어진 해변의 등성이 끝을 이루는 지역을 퇴섬이라 부르고 그 끝을 지칭함.

일정고지[곶]

오천에서 이천으로 가는 해안선의 곶. 지형이 정 (⊠) 자 모양으로 튀어나와서 지어진 이름.

새섬[섬]

이천 서쪽의 운두도와의 사이에 있는 섬. 새는 사이를 줄인 말.

평전[들]

이천 북쪽에 있는 넓고 평평한 지역.

골논[장소]

이천 북쪽의 골짜기 지역의 논.

이대재, 오대재[고개]

이천과 오천 사이의 고개로 이천에서는 오대재라하고 오천에서는 이대재라고 부른다.

꽃밭등[등]

이천 남동쪽의 산등성이로 진달래가 많이 피어서 꽃밭등이라 부르게 되었다 전해진다. 꽃밭등은 우리 지방의 옛지명 중에서 많이 나타나는 지명중 하나로 한자로는 화치 (⊠⊠), 화전치 (⊠⊠⊠), 고치 (⊠⊠)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말 꼬치등, 고치등, 고치고개, 꼬치밭등을 한자를 빌어서 표기한 경우로 본래는 앞으로 툭 튀어나온 형상을 말하는 곶이가 변한 말이다. 식용으로 먹는 고추와 어린 남자아이의 성기를 고치라 부르고 해안의 튀어나온 지형을 곶이라 한다. 곶은 한자로 " ⊠ " 이라고 쓰는데 닭고기를 꿰어서 만든 꼬치구이를 연상하게 한다. 우리지방에 이러한 지형의 땅이름으로는 창무 북쪽 성본마을의 옛이름이 고재이고 한자로는 화치 (⊠⊠) 로 표현하며, 구 삼일지역의 화치동도 같은 뜻이며 화양면 지역에도 감도, 장등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.

진몰랑[산정]

이천 동쪽의 창무로 가는 옛날 큰길이 있는 산의 긴 산등성이.

후리목[장소]

이천 동쪽 진몰랑에 있는 좁은 길목으로 토끼, 노루등을 잡기 위해 몰이를 할 때 이 곳에 그물을 쳐서 잡았다 한다. 후리를 하던 목.

듬벙수재[고개]

듬벙은 물웅덩이의 사투리로 진몰랑에 있던 듬벙이 있던 고개.

섭박골[골]

이천 남동쪽의 골짜기

산태골[골]

이천 남동쪽의 산태가 난 골짜기.

신박골(흰)[골]

이천 중촌과 웃몰사이의 흰바위가 있는 골짜기.

들머들[장소]

이천 중촌 마을 북쪽의 들로 자갈돌이 많아서 붙은 이름.

구렁꼬랑[골]

중촌 동쪽의 땅이 움쑥하게 패인 구렁이 있는 골짜기.

뚱재[고개]

구렁꼬랑 뒷편의 고개

모구낭골[골]

중촌 동쪽의 모과나무가 많은 골짜기.

후리목[장소]

이천 동쪽 진몰랑에 있는 좁은 길목으로 토끼, 노루등을 잡기 위해 몰이를 할 때 이 곳에 그물을 쳐서 잡았다 한다. 후리를 하던 목.

따박몰랑[산정]

중촌과 감도사이의 해안선에 있는 고개.

무장기미[해변]

감도 마을 북쪽편의 해안. 기미는 기미, 구미 (⊠⊠), 금 (⊠) 등으로 표기하는 해안선의 지형이 움푹들어간 곳을 나타내는 땅이름으로 곶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다. 이런 지형을 한자로 표기할 때 쇠금 (⊠) 자를 사용한 관계로 금이 날 것이라는 설이 많이 전해져온다. 무장기미는 물에 잠긴 기미의 뜻. 무장 논은 물이 많은 논이다.

독살기미[해변]

감도마을의 북쪽 끝으로 독살은 굵은 자갈을 말하는 사투리이다. 굵은 자갈이 많은 기미의 뜻.

잇낭기미[해변]

감도마을의 서쪽 끝지점으로 검은자갈이 많은 해변이다.

잉기미[해변]

감도마을의 남서쪽 해안으로 왼쪽으로 구부러진 기미를 뜻한다. (잉구부 = 여수시 연등동의 왼쪽으로 구부러진 도로.)

구렁이[골]

불암산에서 감도 마을로 흐르는 골짜기.

불암산[산]

감도마을 동남쪽의 산으로 178m. 절터로 보이는 집터가 있으며 절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져 온다.

꽃밭등[산정]

중촌 남쪽의 석박골 골짜기 위의 산등성이. 오천의 꽃밭등 참조.

장삼도[섬]

감도 북쪽의 섬으로 스님의 장삼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.

바리섬(래)[섬]

감도마을 북쪽의 해변. 무장기미와 독살기미의 사이의 해변.

산박골[골]

감도 동쪽의 불암산에 있는 골짜기로 삼 (⊠) 나무가 많이 자라던 곳.

버덩들[들]

불암산에서 감도 서쪽 쇠야지 목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가 이룬 들판.

쇠야지목[고개]

불암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자락이 좁게 목을 이룬곳. 소의 목처럼 생겨서 지어진 이름.

산수박바구[바위]

쇠야지 목 부근의 수박처럼 둥근 바위

헷대끝[곶]

운두도의 남쪽 끝의 곶을 이룬 곳.

뒷개[개]

운두도의 동쪽 개.

상산[산]

운두도의 가장 높은 곳의 산 110m.

대팽이[들]

쇠야지 목의 넓고 평평한 곳. 대평이 (⊠⊠) 가 변한 말로 보인다.

캐바구끝[곶]

감도 남서쪽 쇠야지 목의 서쪽 곶. 코모양으로 튀어나온 바위가 있음.

메통바구[바위]

쇠야지 목에 있는 벼를 갈던 메통처럼 생긴 바위

오동머리[장소]

돈돌바대[장소]

쇠야지 목 산에 있는 지역으로 재래식 방을 만들 때 필요한 온돌의 구들돌이 많이 있는 지역.

고려장터[터]

쇠야지목산에 있는 터로 여러 사람이 발을 구르면 쿵쿵 울리는 땅이 있음 예전에 고려장의 풍습이 있을 때 굴을 파서 땅이 울린다하여 고려장터라 한다.

따신기미[해변]

쇠야지목산의 남서쪽 끝의 이름으로 양지쪽이라 겨울에도 따뜻하다하여 붙여진 이름.

용발따죽[장소]

용발자국의 사투리 표현으로 따신기미 해안의 끄트머리에 있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이르는 땅이름이다. 해변으로 넓게 분포된 이 지형은 암석이 양파모양으로 둥글게 벗겨지면서 그 모양이 용의 발바닥을 하늘로 보게 한 것처럼 보인다.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
Web Contents

여수시